

불꽃놀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

불꽃놀이를 단순한 놀이나 관람의 수준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격상시킨 나라가 바로 일본이며, 그 중심에는 불꽃을 만드는 하나비시(花火師)의 존재가 있었음

□ 불꽃을 만드는 장인 ‘하나비시(花火師)’

- 일본사람들이 대표적인 쇼쿠닌(職人, 장인)하면 떠올리는 일본 특유의 직업 중 하나가 하나비시임
- 장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하나비시 역시 수 십 년간 몸으로 일을 익혀야 비로소 쇼쿠닌으로 불릴 수 있음
- 불꽃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학류 단속법이 정하는 보안관리 기술 면허를 취득해야 함
- 일본에서는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둥그런 원이 그려지도록 불꽃을 만드는 데 3년, 불꽃이 피었을 때 빛이 나게 하는 작업을 익히는 데 5년이 통상 걸린다고 함
- * 이렇게 연마한 기술은 여름에 일본 각지에서 하나비시들의 경합으로 열리는 불꽃놀이대회에서 발휘됨
- * 불꽃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설계도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적으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일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비시의 경험과 감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됨

□ 하나비(花火)축제의 역사

- 원래 불꽃놀이는 고대의 통신수단이었던 봉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으며, 화약이 발명된 것은 기원전 210년 경 진나라 시황제로부터 불사약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연히 발명하게 된 것으로 전해짐
- 전쟁 때 봉화 등으로 쓰였던 불꽃이 관상용 불꽃으로 언제부터 발전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음
- 다만 화약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최초의 불꽃놀이 행사가 있었다고 함
- 일본의 불꽃놀이 역사는 1543년 가고시마(鹿児島)현에 위치한 다네고시마(種子島)에 도착한 중국선박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인 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던 소총과 화약이 일본에 전해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
- 그 후 에도(江戸)막부의 초대 쇼군(將軍)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(德川家康)가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불꽃놀이를 접하게 됨
- 1613년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한 불꽃놀이의 명인 존 셀리스가 도쿠가와 앞에서 불꽃놀이를 시연함
- 당시 불꽃놀이는 대나무 관에 검은 화약을 넣고 한쪽 끝을 점화해 불꽃을 뿜어내는 방식이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쇼군과 다이묘(大名)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게 불꽃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퍼져나갔음
- * 이때부터 쇼군과 전국의 다이묘들이 앞 다투어 하나비시를 고용해 자기만의 독특한 불꽃을 만들게 했고, 전통적인 가문의 명예를 걸고 스미다(隅田) 강변에서 불꽃놀이 경연대회를 벌였음

□ 일본의 여름밤을 수놓는 ‘하나비’

- 스미다 강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일본 최고(最古)의 불꽃놀이라는 명성과 맞물려 지금도 도쿄에서는 여름 한때 불꽃놀이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음
- 당시의 불꽃놀이는 강 위에 떠있는 야카다부네(屋形船, 지붕이 있는 놀이 배)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즐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불꽃을 파는 배가 야카다부네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아 불꽃을 쏘아 올렸음
- 그 이후 서민들 사이로 불꽃놀이가 확산되고 하나비시와 불꽃 제조업체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규모가 커졌음
- 그러나 당시 불꽃놀이가 널리 유행하면서 불꽃에 의한 화재가 끊이지 않자, 에도(江戸)막부는 불꽃놀이 금지령을 내렸음
-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게 했는데, 금지령을 해지시키며 다시 하나비를 부활시킨 것은 에도(江戸)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(徳川吉宗)였음
- 1733년 질병(콜레라)과 대기근으로 사망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위령제를 지금의 도쿄를 관통하는 스미다 강변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하면서 금지령은 해제되었음
- * 더욱이 이때 보여주었던 불꽃놀이는 가장 훌륭했다는 평판을 받고 있음
- 이 불꽃놀이를 이끌었던 하나비시는 야마토(지금의 나라(奈良)현)출신으로 불꽃 제조업체 가키야(鍵屋)를 6대째 이어온 야헤에(弥兵衛)라는 사람이었음

- 그 후 1810년 가기야의 7대째 하나비시였던 아오나나(靑七)가 독립해 다마야(玉屋)라는 불꽃 제조업체를 시작했음
- 스미다 강의 상류에서는 다마야, 하류에서는 가기야가 각각의 기량을 선보이며 경합을 벌였고 사람들은 “다마야, 가기야” 라고 응원하며 불꽃놀이를 감상했다고 함
- * 당시 다마야의 인기가 가기야를 능가하고 있었으나 1843년 대형화재 사고를 일으켜 에도(江戸)에서 추방되면서 다마야는 1대를 끝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음
- * 그러나 지금도 매년 7월 30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이 대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“다마야, 가기야” 라고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